

한국의 어류는 936종으로 최근 보고되었는데(한국동물분류학회, 1997), 그 가운데 동종이명이 아닌 종으로 한국에서 기재 발표된 어류는 63종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의 어류가 과학적으로 처음 기재된 것은 1892년 러시아의 Herzenstein에 의한 잉어과 돌고기 *Pungtungia herzi*이고 그 모식표본은 러시아 Petersburg에 있는 학술원 동물학연구소(ZISP 9681)에 있다. 그 후 러시아의 Berg(1906, 1907, 1931)에 의하여 몰개, 묵납자루, 어름치, 칠성말배꼽이 기재되어 모식표본은 역시 ZISP에 있다. Regan(1908)은 가시납지리, 참마자, 통가리의 3종을 청주에서 채집 발표하고 대영박물관(BMNH)보존하고, Jordan 등(1913, 1925)이 기재한 13종의 모식표본은 현재 시카고자연사박물관(FMNH)에 있는데 그 가운데 서호납줄갱이는 국내에서는 이미 절멸된 종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Mori는 1923년 이후 국내 여러 지역에서 많은 신종을 발표하였으나 그 가운데 동종이명으로 밝혀진 것들을 제외하면 18종(각시붕어, 줄납자루, 감돌고기, 쉬리, 배가사리, 돌마자, 모래주사, 돌상어, 꾸구리, 흰수마자, 새코미꾸리, 수수미꾸리, 미유기, 꼬치동자개, 자가사리, 사루기, 자치, 한독중개)이 목록에 포함된다. 그러나 그가 신종으로 기재한 모식표본은 모두 보존기관이 기록되지 않고 또 그 표본의 소재도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Banarescu and Nalbant(1973)는 미국 스미소니안 미국자연사박물관(USNM)에 보존된 2종을 기재하였다. 김익수는 1975년 이후 발표 기재한 참중개, 왕중개, 미호중개, 부안중개, 칼납자루, 임실납자루, 황해볼락, 좀수수치, 동방중개, 큰줄납자루, 땡경모치, 얼룩새코미꾸리 12종을 전북대(CNUC)에 보관하고, 전상린은 1980년 이후 기재한 가는돌고기, 점물개, 동사리, 얼룩동사리, 참돛양태 4종을 상명대(SMWU)에 보관하고 있다. 손영목(1987)은 통사리를 서원대(BCUE), 이용주(1992, 1995)는 망둑어과 2종을 전북대(CNUC), 이충렬

(1990, 1997)은 눈동자개와 등근물뱀을 군산대(BKNU)에, Nalbant(1997)는 남방중개를 루마니아 학술원 생물학연구소(ISBB)에, 정충훈(1997)은 고려홍어를 인하대(FSIU)에, 채병수(1999)는 여울마자를 경북대(BEKU)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기재발표된 어류 63종가운데 완모식 혹은 총모식 표본 19종은 외국 7개 박물관 및 연구소에 보존되었다. 국내에서는 현재 어류 24종의 모식표본이 6개 대학 연구실에 분산되어 개인이 소장하고 있어 관리상 문제가 있는데다 아직까지 소재가 불명한 20종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와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SL703

해양무척추동물(절지동물 제외)의 모식표본 보존 현황

심 정 자
한남대학교

절지동물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해양무척추동물 분류에 관한 연구는 1936년 일본인 Sato에 의한 “남조선 해산동물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조선의 교육 연구”에 발표된 것과 1941년 Kamita 와 Sato가 “인천만의 해산 동물상”이란 제목으로 “조선 박물학회지”에 발표된 여러 해산 동물들을 중심으로 발표가 있는 후 그 이후 60년 초까지 연구가 중단되다가, 1966년 노에 의해 “한국산 원색동물의 연구”에서 13종을 발표하여 현재까지 1신종을 포함하여 78종이 발표되었고, 1968년 김, 노, 심에 의하여 해면동물 17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1신종을 포함하여 223종이 보고되었다. 1970년 이후 자포동물, 태형동물, 환형동물, 완보동물, 극피동물 등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현재 자포동물 4신종을 포함하여 210여종, 태형동물은 5신종, 130여종, 해산 환형동물은

10신종, 280여종, 완보동물은 8신종을 포함한 50여종, 극피동물은 1신종, 110여종이 보고되었으며, 연체동물의 경우 1848년부터 외국인에 의하여 시작되어 현재 해산과 담수산을 포함해 14신종을 포함해 약 650여종이 보고되었다. 모식표본의 보관은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 한남대학교 자연사박물관,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우석대학교, 해양연구소 등에 각각 보관되어 있다.

SL705

**UN의 '지구분류학사업' -
분류학계의 당면 과제**

이 병 훈

전북대학교 자연대 생물과학부

오늘날 지구의 자연과 생태계가 크게 손상되어 하루에 50-100여종의 생물이 사라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1992년 6월 UN은 세계환경개발회의를 열어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을 체결하고 나라마다 자연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되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원리와 기술을 개발하도록 촉구하였다. 그러나 지구상에 생물종이 얼마나 되며 각각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분포 변화와 유전적 다양성을 보이고 있는지 극히 일부 밖에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협약의 과학기술보조자문기구(SBSTTA)와 당사국회의(1996. 11)는 나라마다 자체적으로,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해 '분류학 능력의 제고' (Capacity Building for Taxonomy)를 도모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작성하고 승인하게 되었으며 지구분류학사업(Global Taxonomy Initiative; GTI)으로 추진토록 결의하였다. 그 후 이 사업(GTI)의 준비위원회가 국제생물과학연맹(IUBS), UNEP, 계통분류학사업 2000 (Systematics

Agenda 2000) 등과 연대하여 지난 3년간 그리스(1997. 9), 오스트레일리아(1998. 2), 런던(1998. 10), 뉴욕(1998. 10), 파리(1999. 2)에서 열렸고 다음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 1) 분류학적 연구가 모든 나라의 정부 부서들이 추진하는 각종의 지속 가능한 개발사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 2) 분류학적 기반시설(자연사박물관과 식물표본관등)이 창설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 3) 분류학 훈련과정이 개설, 운영되어야 한다.
- 4) 국가참조표본센터를 지정하고 표본내의 정보가 표본의 원산국에 전달되어야 한다.
- 5) 분류학적 필요에 관한 평가와 분류학적 작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워크숍이 개최되어야 한다.
- 6) 신물질 탐색(bioprospecting), 주춧돌 중, 가축의 근연 야생종, 생물학적 방제, 외래종의 통제, 질병 통제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 7) 지구분류학사업과 국내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 8) 이러한 사업의 이행을 위해 국가마다 분류학 행동 계획(Taxonomic Action Plan)을 수립해야 한다.

그간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분류학 능력 제고를 위해 각종 지원과 인력확대 그리고 국제협력을 꾀할 것을 "생물다양성 국가전략"(대한민국, 1997)에 표명하였으나 그 후 지난 수년간 진행된 것은 거의 없다. 우리 분류학자들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적 분위기와 국내의 당면문제에 대처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까를 깊이 생각하고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